

글로벌 K-Culture 흐름 속에서 스트리트 댄스 역사 이론 수업 구조와 경험

- 대학원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

이지훈*

- I. 서론
- II. 연구 방법
- III. 연구 결과

- I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무용을 포함한 실천적 학문에서의 이론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기의 질적 심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김수연, 2003, p. 1). 이는 체육과 음악, 조리학 등의 여러 실기 중심 분야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론적 지식은 기술 습득의 정확성 및 전이 효과를 높이며, 학습자가 수행 동작의 원리와 맥락을 이해할 때 수행 능력이 향상되고, 해석력과 창의적 표현을 확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실습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임수진, 2022, p. 44).

특히 무용예술 분야에서 이론 적용의 유용성은 다각적 측면에서 높으며, 이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실기 역량 강화 측면이다. 이론교육은 많은 실증 연구에 나타난 것과 같이 무용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고 긍정적 정서를 촉진하여 자기효능감과 몰입을 높인다(이향범, 이한경, 이영일, p. 310). 또한 해부학 및 운동역학 지식을 기반으로 움직임의 수행 과정을 분석하고 효율성을 높여, 부상 예방과 기술 숙련을 위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전략적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이금용, 2010, p. 2). 둘째, 감상의 깊이 심화 측면이다. 무용사와 철학, 미학, 사회·문화 이론은 춤의 움직임 이면에 자리한 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춤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이를 통해 젠더, 계급, 인종 등의 사회적 의미를 학습자가 인식하게 하고, 무용의 문화적 속성은 사회적 담론과 연결할 수 있는 매개로 확장시킨다(김현정, 2006, p. 91). 셋째, 교육의 지속성 확보 측면이다. 이론교육은 예술경영과 리더십을 포함한 행정적 요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영상 플랫폼 등 기술·미디어 요인의 폭

* 한양대학교 ERICA 무용과 강사, fab_one@naver.com

넓은 탐색 등, 새로운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높인다(현보람, 2024, p. 120). 이는 무용 진로를 창작·교육·기획 등으로 확장하게 하고, 보다 심층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무용 교육의 심화와 확장을 촉진한다. 이처럼 무용 이론교육은 실기의 질을 높이고, 감상의 층위를 확장하며,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불가결한 토대라 할 수 있다.

무용 이론 중에서도 특히 역사 교육은 무용 장르의 정체성 및 예술성을 확립하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한다. 역사 교육은 과거의 사실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춤의 생성과 발현에 대한 문화적 맥락과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는 핵심 과정이며, 무용예술이 변화와 융합 속에서도 발전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중요한 기능을 한다(황정옥, 2019, p. 31). 이뿐만 아니라 무용 역사 교육은 학문적 위상을 확립하는데에도 기여한다. 반면, 역사 교육이 부재할 경우, 교육적 깊이의 부족과 장르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홍애령, 2020, p. 123). 나아가 역사 교육은 단순히 과거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창작으로 연결되며, 작품과 레퍼토리의 전승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무용 역사 교육은 지식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 장르의 탄생과 사회적 배경,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실기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무용 역사 이론교육의 중요성을 스트리트 댄스 분야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케이-컬처(K-Culture)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스트리트 댄스가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 형태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며,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자현, 2022, p. 36). 그러나 이러한 관심의 확대와 함께 춤 탐구에 대한 대중의 지적 욕구는 높아진 반면, 이를 충족시킬 제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그 제반과 토대를 마련해야 할 실용무용 예술대학의 운영 구조가 실기 교육에 편중되어 있으며, 고등교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점은행제에서는 무용 교과목을 통해 역사를 충분히 학습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이지훈, 2023, p. 86). 물론 대학원 과정에서 스트리트 댄스 역사 교육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역시 교강사의 역량과 교육 내용 선택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더해 스트리트 댄스 역사 교육의 특수성은 무용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 전통무용은 수백 년간 문헌·의례·제도적 교육체계를 통해 안정된 기록 기반의 전승 방식을 유지해 온 반면, 스트리트 댄스는 현재에도 창시자와 1세대 마스터들이 생존해 있어 구술적·실천적으로 전승되고 현장성을 중심으로 역사가 전승되는 살아 있는 문화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일부 스트리트 댄스 관련 서적에서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에는 용어가 매우 생소하여 접근성이 낮다. 또한 마스터들에 의해 실질적 인터뷰와 조사를 통한 현상학적 접근이 더 높은 신빙성을 갖는다는 현실적·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최용원, 유화정, p. 81). 이러한 전승 구조의 차이는 단순한 장르 간 대비가 아닌, 무용 장르가 어떠한 방식으로 신체기반 지식(culturally embodied knowledge)을 형성하고 전달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비교 지점이다. 즉, 전통무용이 제도화된 기록 중심의 전승을 통해 역사적 안정성을 확보해 왔다면, 스트리트 댄스는 영상·커뮤니티·구술·현장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석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적 역사로 축적되고 있으며, 이는 스트리트 댄스 역사 교육이 교육기관 내에서 체계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더 나아가 케이-컬처의 시대에 스트리트 댄스가 다양한 요소와의 융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스트리트 댄스의 이론 부족은 다각적 측면에서 확장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스트리트 댄스 관련

자료의 부족과 정보 접근성의 한계는 인접 분야와 정책 수립의 확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스트리트 댄스 분야에 특화된 전문 용어와 어려운 표현은 실기 중심 교육의 편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문현주, 신혜선, p. 66). 또한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로 스트리트 댄스 역사와 관련된 정보는 양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에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이나 해석의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스트리트 댄스가 실천적 현장에서 급속한 문화적 확산을 보이는 현시점에서 이를 뒷받침할 견고한 이론적 토대의 구축은 해당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그 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무용 이론교육의 필요성 및 구조에 대한 연구(김지원; 2003, 김민정; 2017, 김현남; 2018, 류한울, 문영; 2018, 황인주; 2000)과 실용무용 교육의 제도화와 교육과정 연구(김이재, 이연주, 최수진; 2023, 이지훈, 이해준; 2023, 조아현, 정승혜, 이해준; 2024, 배건희; 2025), 스트리트 댄스 이론교육 경험에 대한 연구(박혜진, 2025)가 이루어져 왔다. 물론 팝핑, 락킹, 왁킹 등 개별 장르를 단편적으로 다룬 연구는 존재하나, 본 연구는 이론의 하위 내용이 아닌 이론의 방법적 실천에 대한 측면을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의 역사 중심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문헌 중심 분석이 아니라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실제 학습자의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스트리트 댄스 이론 교육의 구조와 작동 방식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과 개별 장르가 아닌 스트리트 댄스 전체의 역사 교육을 케이-컬처 시대의 고등교육 맥락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케이-컬처 확산의 흐름 속에서 실제 스트리트 댄스 역사 이론수업의 사례를 통해 교육적 함의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스트리트 댄스 전공 교육과정 설계 및 대학원 수준의 이론교육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리트 댄스 역사 이론 수업의 구조는 어떠한가?

둘째, 스트리트 댄스 역사 이론 수업의 경험은 어떠한가?

셋째, 스트리트 댄스 역사 이론 수업의 교육적 함의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글로벌 케이-컬처 확산 흐름 속에서 스트리트 댄스 역사 이론 수업의 교육적 구조와 학습자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case study) 방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업과정에서 학습자가 가지는 인식 변화와 이해도를 탐색하기 위해 연구의 분석 틀로 현상학적 접근(phenomenological approach)을 적용하였다. 현상학적 분석은 참여자의 경험 속에 드러난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며, 본 연구에서는 Colaizzi(1978)의 절차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 및 해석하였다. 15주간 진행된 이론 수업은 강의식, 발표·토론식, 피드백 및 평가 단계로 구성되었으며, 강의식 수업은 지식 습득의 관점

에서, 발표·토론식 수업은 자료 탐색과 공유, 토론, 피드백의 순환 구조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학습자의 경험과 인식은 ‘스트릿 댄스 역사 이론 강의 경험’과 ‘발표·토론 중심 수업 경험’으로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최종 분석 결과는 수업 구조와 학습 경험의 관계를 중심으로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업 구조가 학습자의 이해 과정과 인식 변화에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파악하고, 사례 수업의 운영 방식과 학습 경험의 실제적 양상을 도출하였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국내 K 대학교 공연예술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15인이다. 참여자들은 실용무용 4명, 한국무용 4명, 현대무용 5명, 스포츠 관련 전공 2명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스트릿 댄스에 대한 관심이 높거나 1년 이상의 실기 경험을 갖고 있다. 반면 이론 수업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실기적 전문성과 학문적 탐구 의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 역사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를 직접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 선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연구 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안내받고 사전 동의서를 작성한 뒤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2. 자료 수집

자료수집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 15주간의 스트릿 댄스 역사 수업을 마친 후, 총 2차례의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1차 설문은 강의식 수업(설명식 강의, 영상 시청, 토론, 사진 자료, 질의응답 등)과 발표 수업(조별 과제, 자료 탐색, 발표 공유)을 통해 수업 경험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특히 15주 동안 이러한 수업 방식이 학습자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혹은 어떤 저항이 나타났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2차 설문은 보다 구체적 차원에서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검토하였다. 주요 항목은 ‘역사 자료 수집 방식’, ‘자료 탐색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어려움 해결 전략’, ‘역사 인물 학습의 중요성’, ‘인물 설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수법’ 등을 포함하였다.

추가적으로 1차 응답에서 인물에 대한 답변은 저항이 많았으나 이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인물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다수 존재해 2차 설문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학습자의 발표 준비 과정과 정보 탐색 방식(자료 검색, 정리, 발표 구성)을 관찰하고 현장 노트로 기록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설문 및 관찰 자료는 질적 분석 방법으로 검토하였다. 모든 응답은 전사 후 의미 단위별로 코딩하여, 수업 방식에 대한 학습자 반응, 자료 탐색의 실제적 어려움, 역사 인물 학습의 교수적 의미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범주화하였다. 분석에는 현상학적 접근(phenomenological approach)을 적

용하여, 학습자의 경험 속에서 스트릿 댄스 역사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해 자료의 삼각검증(triangulation)과 전문가 검토(peer debriefing) 절차를 병행하였다.

특히 자료 수집과 분석, 내용 해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용무용교육 및 질적연구방법 전공 박사 3인에게 분석 결과를 검토 받았으며, 피드백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해석의 진실성(truthfulness), 타당성(validity), 신뢰성(reliability)을 강화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수업 구조 분석

본 수업은 총 15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세 가지 핵심 활동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교수자 중심의 강의 단계(1-3주 차), 둘째, 학습자 중심의 발표 단계(4-12주 차), 셋째, 학습내용 정리 및 피드백 단계(13-14주 차)이다. 또한 7주 차와 15주 차에는 중간·기말 평가를 실시하여 학습 성과와 이해도를 점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자 중심의 강의 단계에서는 스트릿 댄스의 기원, 주요 장르(팝핑, 락킹, 브레이킹 등)의 문화적 배경과 형성, 미국 흑인 커뮤니티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기초 지식과 용어 체계를 습득하도록 하였다. 수업은 스트릿 댄스의 기본 요소와 정보 전달을 위주로 장르별 간략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특히 3주 차에서는 스트릿 댄스 각 장르의 기원과 특징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학습자들이 장르별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영상 자료를 탐색하게 하며 자료 탐색 가이드를 제공하였다.

〈표 1〉 스트릿 댄스 역사 이론 강의식 수업의 주차별 구성 및 학습목표

주차	주요 내용 및 활동	수업 방식	핵심 학습 목표 / 활동의 특징
1주차	오리엔테이션 및 수업 목표 안내 / 스트릿 댄스 역사 교육의 필요성 이해	교수자 설명 중심	학습 방향 제시, 역사·문화적 접근의 필요성 인식
2주차	스트릿 댄스의 기원과 1960~70년대 미국 거리 문화 탐색	교수자 강의 + 영상 시청	사회·문화적 배경 속 스트릿 댄스의 형성 과정 이해
3주차	주요 장르 정의(락킹, 팝핑, 브레이킹 등)와 역사 / 학습자 주제 선정 및 발표 준비 병행	교수자 강의 + 교수자 설명 + 자료탐색 가이드 제공	장르의 기원과 특징 개관, 발표 주제 탐색 기반 마련

둘째, 학습자 중심의 발표 단계에서는 각 장르의 특성과 주요 인물을 주제로 조사·발표를 진행하였다. 학습자들은 개별 또는 소그룹 단위로 발표를 준비하였으며, 발표 후에는 교수자 피드백과 전체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스트릿 댄스의 하위 장르라 하더라도 모든 장르의 역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되거나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 각 장르가 고유 문화를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접근 방식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모든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한 피드백이 공통적으로 진행되었

으나, 장르 특성에 따라 수업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팝핑과 락킹은 스트릿 댄스 중 가장 오래된 장르로, 춤의 기원과 특징을 중심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브레이킹, 프리스타일 힙합, 댄스홀은 힙합문화와 자메이카 문화와 관련된 설명과 토론이 주를 이루었으며, 와킹, 하우스, 크럼프는 춤의 특성에 대한 질의응답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표 2〉 학습자 발표 중심 스트릿 댄스 역사 수업의 단계별 진행 및 핵심 내용

주차	주요 내용 및 활동	수업 방식	핵심 학습 목표 / 활동의 특징
4주차	팝핑(Popping)의 역사와 대표 인물 분석	학습자 발표 + 질의응답 + 교수자 피드백	팝핑의 특성과 마스터 이해, 표현 양식 분석
5주차	락킹(Locking)의 형성과 Funk 문화의 영향	학습자 발표 + 질의응답 + 교수자 피드백	춤의 탄생 및 특징, 문화적 탐구
6주차	브레이킹(Breaking)의 기원과 힙합문화의 탄생	학습자 발표 + 질의응답 + 교수자 피드백	브레이킹의 사회적 배경 및 힙합문화의 4대 요소 통합 이해
8주차	와킹(Waacking)의 사회·문화적 배경 및 젠더 이슈	학습자 발표 + 질의응답 + 교수자 피드백	성 정체성, 표현의 자유 등 문화적 함의 분석
9주차	힙합문화와 프리스타일 힙합(Freestyle Hip-hop)의 형성과 변천	학습자 발표 + 질의응답 + 교수자 피드백	힙합의 개념 및 정의, 문화적 탐구, 시대적 흐름
10주차	하우스(House Dance)의 발전과 클럽 문화의 확산	학습자 발표 + 질의응답 + 교수자 피드백	하우스 댄스의 특징, 음악의 탄생 배경
11주차	크럼프(Krump)의 사회적 배경과 정서적 표현 연구	학습자 발표 + 질의응답 + 교수자 피드백	정체성, 저항, 감정 표현의 예술적 가치 탐구
12주차	댄스홀(Dancehall)의 기원과 글로벌 확산 / 문화적 변용 논의	학습자 발표 + 질의응답 + 교수자 피드백	탈식민주의 관점에서의 문화 수용 및 변형 이해

셋째, 학습내용 정리 및 피드백 단계에서는 발표 내용을 재정리하고, 피드백을 통해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내용 이해 정도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수업 구조가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점과, 발표 및 토론 중심 수업을 통해 이론적 내용을 실제 문화적 맥락과 연결할 수 있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발표 준비 과정과 수업 중 활용된 영상, 사진, 음악 자료가 스트릿 댄스의 역사적 맥락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3〉 스트릿 댄스 역사 수업의 학습 정리 및 피드백 단계별 활동 구성

주차	주요 내용 및 활동	수업 방식	핵심 학습 목표 / 활동의 특징
13주차	학습 내용 종합 토론 및 상호 피드백	토론 중심	발표 내용 통합 및 비판적 시각 형성
14주차	학습자 성찰 보고 및 강의 전체 피드백	개별 발표 + 피드백	학습 과정에 대한 자기 성찰 및 개선 방향 탐색

7주 차와 15주 차에는 과제 제출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7주 차인 중간고사에서는 스트리트 댄스의 개념 및 정의, 팝핑·락킹·브레이크킹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15주 차인 기말고사에서는 그 간 학습한 내용을 장르별로 구분하여 요약 과제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스트리트 댄스의 개념 및 정의와 8개 장르 전반을 포괄하여 학습자의 종합적 이해도를 평가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표 4〉 스트리트 댄스 역사 이론 수업의 중간·기말 평가 내용 및 피드백 체계

주차	주요 내용 및 활동	수업 방식	핵심 학습 목표 / 활동의 특징
7주차	중간고사 (개념 정리 및 서술형 평가)	평가 중심	이론적 개념 정립 및 발표 이해도 점검
15주차	기말고사 (서술형 평가)	종합 평가	학습 내용의 통합적 이해 및 응용력 검증

2. 스트리트 댄스 역사 이론 수업의 경험

가. 강의식 수업의 경험과 인식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의 스트리트 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스트리트 댄스의 개념 및 정의에 관한 설명과 자료 탐색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가장 근본적인 정의를 이해할 수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 장르를 탐색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스트리트 댄스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알게 되었다. 스트리트 댄스에 대해 궁금해도 무엇을 봐야할지 어려웠는데 알 수 있어서 좋았다(김OO, 1차 설문).

스트리트 댄스가 길에서 추는 춤이 아닌 문화에서 파생되었다는 정의를 이해하게 됐다. 매번 스트리트 댄스 키워드로만 영상을 검색해서 찾아보다가 구체적으로 찾는 방법을 알게 돼서 다양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었다(이OO, 1차 설문).

스트리트 댄스 문화에 대해 이해가 되었고 반복 학습으로 마지막까지 기억에 남았다(진OO, 1차 설문).

스트리트 댄스의 정의 및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가 되었다(정OO, 1차 설문).

스트리트 댄스의 정의와 장르에 대해 이해가 되었다. 부분적으로 있던 어려움은 피드백을 통해 보완이 되었고 춤에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게 되었다(장OO, 1차 설문).

나. 발표 중심 수업에서의 학습 경험

본 장에서는 발표 중심 학습자의 수업 경험을 살펴보았다. 수업의 핵심 학습 활동은 발표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습 경험은 발표 준비의 경험과 발표 공유의 경험으로 구분되었다. 발표 준비의 경험은 다시 준비 과정에서의 경험과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으로 세분화되었으며, 발표 공유의 경험은 전반적인 발표 수업의 흐름과 학습자 간 상호작용 경험을 포함하였다.

1) 발표 준비 과정에서의 경험

다음은 발표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학습 결과이다. 학습자들은 네이버, 구글, 유튜브, 스트릿 댄스 관련 서적, 전문 인터뷰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였다. 특히 유튜브는 장르별 특징과 동작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다수였으며, 일부 학습자는 챗GPT나 위키피디아를 활용해 기본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표 5〉 스트릿 댄스 역사 수업 발표 준비 과정에 대한 학습자 설문 응답

출처	관련 내용
장00	발표를 위해 네이버 검색, 유튜브 영상 시청, 스트릿 댄스 전공자에게 질문하였다. 외국에서 시작된 춤이기 때문에 외국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부분과 장르별 특징 및 동작도 생소한 부분이 많아 자료를 찾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김00	발표를 위해 인터넷 검색, 스트릿 댄스 관련 서적, 유튜브 영상등을 검색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가 많지 않고, 특히 댄서들의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다.
손00	발표를 위해 스트릿 댄스 관련 서적, 전공자에게 질문하였다. 생소한 내용이 많아 여러차례 영상을 시청하며 이해를 했다.
정00	발표를 위해 스트릿 댄스의 역사 책을 인용, 구글 검색, Chat gpt 활용하였다.
이00	발표를 위해 네이버와 구글을 활용하였다. 장르의 특징과 역사보다 해당 장르의 유명 댄서와 마스터를 찾는게 어려웠다.
김00	발표를 위해 유튜브와 스트릿 댄스 교재를 활용하였다. 정리된 자료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장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경로와 공식적인 자료, 온라인 사이트를 참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최00	발표를 위해 인터넷 검색, 논문, 유튜브를 활용하였다. 장르가 많아 익숙해지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2) 발표 공유 과정에서의 경험

다음은 발표 공유 과정에서 나타난 학습 결과이다. 학습자들은 스트릿 댄스의 개념 및 정의, 장르 전반, 역사적 흐름, 문화적 측면에서 이해가 이루어졌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에서는 패션과 장르를 연계하여 영상을 시청한 경험, 시청각 자료가 장르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표 6〉 스트릿 댄스 역사 수업 발표 공유 과정에 대한 긍정적 설문 응답

출처	관련 내용
장00	스트릿 댄스의 정의와 장르에 대해 이해가 되었다. 부분적으로 있던 어려움은 피드백을 통해 보완이 되었고 춤에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게 되었다.
김00	영상을 통해 장르별 특성에 대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패션과 시청각 자료를 통해 역사와 스트릿 댄스에 대해 이해가 쉽게 되었다.
손00	평소 관심이 있던 타 장르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까지도 이해가 되었다.
정00	스트릿 댄스의 정의 및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가 되었다.
이00	스트릿 댄스에 대한 이해와 장르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 특히 영상을 시청하며 장르별 차이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진00	스트릿 댄스 문화에 대해 이해가 되었고 반복 학습으로 마지막까지 기억에 남았다.
최00	장르마다 패션이 다르고 그것을 춤과 연결시켜 영상으로 확인하니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다.

반면, 스트리트 댄스 장르 전반에 걸쳐 다양한 마스터가 존재하고, 이들이 외국인이라는 점이 학습자의 인지적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요인은 장르 간 연관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장르의 계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표 7〉 스트리트 댄스 역사 수업 발표 공유 과정에 대한 부정적 설문 응답

출처	관련 내용
김OO	창시자들이 살아 있어서 역사가 정리됐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김OO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 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손OO	인물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OO	서양 인물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가 어려웠다. 익숙하지 않은 장르는 영상 분류와 차이점 체크가 필요하다. 시각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OO	전공 장르 외 타 장르의 특징과 인물에 대한 내용은 기억에 남지 않았다.
진OO	인물이 많아서 다소 헷갈리고 이름과 장르가 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최OO	창시자와 마스터의 수가 많은 점은 전공자일지라도 기억에 잘 남지가 않았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다수의 해외 댄서 등장으로 인해 장르와 인물의 매치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동시에 이들이 스트리트 댄스 형성과 확산을 주도한 핵심 인물임을 인식하였다. 특히 창시자나 마스터로 지칭되는 인물들은 각 장르의 역사적 근거와 정체성을 구축한 주체로 평가되었으며, 이들의 활동을 이해하는 과정이 학습자들에게 스트리트 댄스의 역사적 맥락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중요한 학습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인물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사와 전통이 춤에 담기기 때문에 인물을 알아야 역사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김OO, 2차 설문).

춤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와 당시 문화적 배경을 알고 있어야 춤의 의미와 철학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김OO, 2차 설문).

인물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어떤 계기로 이 춤을 시작했는지 알게 되면 춤을 출 때 그것에 몰입해 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손OO, 2차 설문).

마스터나 창시자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물들은 장르들이 발전하는 데 많은 기여와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이다(진OO, 2차 설문).

그 장르의 시작을 알린 인물일 수도 있고, 영상을 보고 스타일을 파악함으로써 장르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정OO, 2차 설문).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아 아직까지 어려운 점이 많다(이OO, 2차 설문).

인물들의 시청각 자료가 중요할 것 같다(장OO, 2차 설문).

다. 평가 단계에서의 경험

15주간의 역사 이론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은 스트리트 댄스의 문화적·역사적 이해 수준이 이전보다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학습 성과는 인물의 중요성 인식, 역사 수업을 통한 문화적 맥락 이해, 여전히 존재하는 자료 접근의 어려움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물의 중요성 인식이다. 대부분의 학습자는 역사 속 인물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각 장르의 창시자나 마스터들의 활동 및 시대적 배경을 학습함으로써, 스트리트 댄스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적 표현이 결합된 산물’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발표를 준비하며 스트리트 댄스가 단순히 춤의 한 장르가 아니라 문화 자체이며 토론을 통해 장르마다 담겨있는 예술적 의미를 알게 되었다(정OO, 2차 설문).

발표를 하고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하는 방식의 수업이 좋았다. 또한 피드백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스트리트 댄스가 어떻게 시작되고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손OO, 2차 설문)

둘째, 역사 수업을 통한 문화적 맥락 이해이다. 학생들은 “역사 수업이 춤의 뿌리와 철학을 이해하게 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장르별 계보와 문화적 맥락을 학습한 경험이 자신의 실기 표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스트리트 댄스의 역사 수업은 단순하게 창시자나 마스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 춤의 시작과 그 춤에 담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서, 춤을 출 때 그것을 생각하며 표현하게 되었다(김OO, 2차 설문).

역사에 대해 공부하며 장르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고 단순히 음악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춤의 기원을 생각하며 문화를 담으려고 하게 되었다. 아직 진행되고 있는 역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장OO, 2차 설문).

셋째, 여전히 존재하는 자료 접근의 어려움이다. 학습자들은 자료 접근성의 한계, 일부 장르 간 구분의 모호성, 해외 원자료의 부족 등을 어려움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일부 학습자는 스트리트 댄스의 역사가 아직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living history)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자료 발굴과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시대적 역사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시청각 영상을 통해 스트리트 댄스 장르를 비교하고 춤의 탄생과 기원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한 마스터가 다수 살아 있기 때문에 현재도 변화는 진행 중이며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김OO, 2차 설문).

등장 인물이 많다는 점이 어려웠지만 이 부분이 아직도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음악을 표현하는 춤이 아닌 문화가 장르마다 담겨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이OO, 2차 설문).

이러한 결과는 스트리트 댄스 역사 이론수업이 단순한 실기 보조의 기능을 넘어, 학습자의 인식 구조를 전환하고 사고의 깊이를 확장시키는 교육적 장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이론적 탐구를 기반으로 한 학습 과정은 실기 중심 교육이 간과하기 쉬운 비판적 사고력과 자기성찰적 태도를 촉진하였으며, 학습자들로 하여금 스트리트 댄스를 대중예술의 일부가 아닌 예술적 탐구의 대상으로 재인식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K-Culture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K-pop의 주요 구성 요소로 자리한 스트리트 댄스의 문화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역사 이론교육의 중요성 또한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리트 댄스 역사교육이 살아 있는 역사(living history)로서 기능함을 시사한다. 전통 무용사가 기록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과 달리, 스트리트 댄스는 여전히 생존해 있는 창시자와 마스터들의 구술,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의 현장 경험을 통해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트리트 댄스가 실기 중심 교육을 넘어 문화예술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하며, 이론적·철학적 탐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원 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스트리트 댄스 역사 이론 수업 사례를 통해 이론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 함의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실용무용 교육이 실기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 속에서, 본 연구는 역사적 맥락을 기반으로 한 이론 수업이 학습자의 인식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리트 댄스 역사 수업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움직임의 학습을 넘어, 장르의 기원과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교육적 효과를 보였다. 학습자들은 장르의 창시자와 시대적 맥락을 학습하면서 춤의 문화적 뿌리와 예술적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는 실기 표현의 내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강민아, 2018, p.3). 이러한 결과는 무용 이론교육이 실기 중심 학문에서 학습자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수행 능력의 질적 향상을 촉진한다는 류한울, 문영(2018), 윤지은(2018)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둘째, 이론 수업의 진행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료조사와 토론, 발표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탐구 능력을 함양하였다. 이는 실용무용 교육에서 흔히 간과되는 학문적 사고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 피드백을 통해 자기성찰적 학습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 탐구를 통해 실기 능력을 확장 시킨다는 문현주, 신혜선(202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셋째, 교수자의 전문성은 수업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역사 이론수업을 진행한 교수자는 장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매체 및 실제 사례를 병행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높였고, 이는 학습자 만족도와 몰입도를 높이는 주요한 교육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교수자의 전문성은 실기 중심의 스트리트 댄스 교육이 이론적 체계를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지훈, 2023, p.87).

넷째, 실용무용 전공생들은 스트리트 댄스를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예술적 탐구의 대상으로 재인식

하였다. 특히 K-Culture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스트릿 댄스의 문화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사 이론교육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스트릿 댄스 역사 이론수업은 실기 중심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며, 예술교육으로서의 실용무용의 학문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제언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용무용 교육과정 내에서 스트릿 댄스 역사 이론과 같은 교과목이 정규과정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춤의 기원과 장르별 특성, 창시자의 사상, 음악과의 관계를 심화 학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생 15인으로 제한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습자 표본을 확대하여 스트릿 댄스 이론 수업이 학습자의 인식 변화, 창작 능력,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점은행제, 전문대학, 예술대학 등 다양한 교육기관의 비교연구를 통해 이론교육의 실제적 효과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교수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연수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스트릿 댄스 장르의 이론적 연구는 현재까지도 확립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교수자가 지속적으로 장르 연구와 교육 콘텐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정부 및 문화예술 기관은 스트릿 댄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론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재 발간을 지원하고, 무분별하게 전파되어 있는 자료를 체계화 시켜 학문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론 수업은 단순하게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가 춤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기 표현의 철학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실용무용 전공 교육에서 스트릿 댄스 이론 수업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강민아(2018). 국내 무용예술영재 교육환경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김민정(2017). 문화예술교육사 연수 여부에 따른 무용교육이론 및 무용지도 능력 비교 연구. **한국무용학회지**, 17(1), 22-31.
- 김수연(2003). 대학 무용과생의 이론교육에 대한 인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이재, 이연주(2023).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실용무용 교육 동향 분석: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실용무용학회지**, 1(2), 77-84.
- 김지원(2003). 무용이론교과의 역할에 기초한 우리춤 교수법 연구. **대한무용학회**, 37(0), 59-78.
- 김현남(2018). 서울, 경기지역 예술고등학교 무용이론 교육현황 분석. **한국스포츠학회지**, **한국스포츠학회지**, 16(4), 205-212.
- 김현정(2006). 수잔 리 포스터를 중심으로 시작된 일련의 무용 문화연구 경향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18(18), 71-98.
- 문현주, 신혜선(2024).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스트리트 댄스 교육 제도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점으로 -. **무용예술학연구**, 96(3), 65-81.
- 배건희(2025). 실용무용 교육 연구 동향 분석 : 국내 학술지 및 학위논문을 중심으로(1990년-2024년). **한국실용무용학회지**, 3(2), 18-25.
- 류한울, 문영(2018). 홀리스틱 통합무용교육이론 기반 발레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무용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용학회**, 76(6), 63-75.
- 이금용(2010). 무용에 대한 운동역학의 연구 동향. **한국무용과학회지**, 0(22), 1-15.
- 이병준, 김경미(2020). 제스처 기반 무용교육이론에 대한 탐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5(5), 1-27.
- 이자현(2022). 대중문화 현상으로 본 한국 스트리트 댄스의 의미. **예술과 과학기술**, 18(3), 35-55.
- 이지훈(2023). 스트리트댄스 교육 형태별 효율적 교수를 위한 실천행동 탐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지훈, 이해준(2023). 학점은행제 실용무용 교육에 대한 교강사의 중요도와 실행정도 IPA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91(2), 85-102.
- 이향범, 이한경, 이영일(2015). 교양무용/체육수업 참여에 따른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몰입경험 및 대학생활만족의 관계. **한국무용연구**, 33(3), 309-330.
- 임수진(2022). 인문학적 소양교육을 위한 교양무용 콘텐츠 개발 : 메디치 가(家)와 공자에게 배우는 창의력과 리더십. **한국무용과학회지**, 39(1), 43-58.
- 조아현, 정승혜, 이해준(2024). 고등교육기관 실용무용 개설현황과 교과목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97(4), 143-156.
- 최용원, 유화정(2023). 국내 스트리트댄스 교육의 변화 흐름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한국무용학회지**, 22(4), 79-91.
- 황인주(2000). 무용연습과정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무용이론교육의 역할 및 방향. **대한무용학회**, 28(14), 331-344.

- 황정옥(2019). 동시대 무용교육의 문화 정체성 해석 기능.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0(4), 27-40.
- 현보람(2024).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른 국내 무용교육의 트렌드 변화 연구. **국제문화&예술학회**, 5(1), 109-124.
- 홍애령(2020). 한국 무용교육의 역사적 흐름과 영역의 재검토 : 교육무용 지향에서 큰 무용교육 지향으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7(4), 121-139.

논문투고일 2025. 11. 15.

심사일 2025. 11. 17.

심사완료일 2025. 12. 03.

Structure and Learning Experiences of a Street Dance History Theory Course in the Global K-Culture Era

– A Graduate-Level Case Study –

Lee, Jihoon

Lecturer, Hanyang University Erica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e and learning experiences of a street dance history course in the context of the expanding global K-Culture movement. Using a qualitative case study design, the research analyzes a 15-week graduate-level course through phenomenological methods to explore how students perceive and construct knowledge of street dance history. Data were collected from class observations, learning journals, surveys,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15 graduate students from diverse dance backgrounds. Colaizzi's phenomenological analysis was applied to derive key themes regarding students' cognitive, cultural, and interpretive engagement with historical content. The findings reveal how the course's lecture-based and discussion-centered structures enable students to contextualizing street dance within broader cultural, artistic, and historical framework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systematic historical education in street dance curricula to foster informed artistic practice and strengthen the academic foundation of practical dance programs in higher education.

Keywords: Street Dance(스트리트 댄스), Dance Education(무용 교육), History Theory(이론교육), Street Dance Education(스트리트 댄스교육), Practical Dance(실용 무용)